

“中企 정책기조 전반 개선필요”

》1면 ‘中企 위한...’서 계속

다만 올해 지역별 지원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기 31.2% ▲서울 20.4% ▲경상도 11.6% ▲인천 8.5% ▲부산 7.4% ▲충청도 6.4% ▲대구 5.2% ▲전라도 2.9%로 대부분 수도권에 편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풀림 현상으로 지방 중소기업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실제 해외펀딩 중개 금융기관은 총 14곳이지만, 이 중 지방은행은 부산은행·대구은행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316억원으로 지난해 5797억원 대비 195.2% 급증했다.

중소기업 ‘경영 불모지’라는 인식이 커진듯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에서 해외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진출한 기업이 국내 투자 환경 등이 좋지 않아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 환경은 국내와 국외 중 어디가 좋을까’ 질문에 답변한 기업 216곳 중 76.9%인 166곳은 ‘국외가 좋다’고 답변했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가 78.7%로 ‘있다’ 18.1%보다 4배나 많았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시 국가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 기업 115곳 중 ‘세제 혜택’이라고 답한 기업이 48.7%로 가장 많았다. 중복응답을 포함해 ‘금융지원’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도 56%에 달했다.

국내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청년 지원 사업으로 취업한 3명 중 1명이 1년도 안 돼 퇴사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2657명이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진공이 올해 2월 해당 사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2.3%에 불과했다. 청년 37.7%가 1년도 채 안 돼 퇴사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철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의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한달 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1일 앞둔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랑진종로학원에서 한 수험생이 자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LTE 다운속도, 수도권서도 최대 3배 차이

최저 71.77Mbps, 최대 201.85Mbps

‘4세대 이동통신 기술(LTE)’ 저장 속도 차이가 수도권 안에서도 최대 3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TE 서비스 지역별 품질 서비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지역 내 LTE 다운로드 속도는 지역별 최저 71.77Mbps, 최대 201.85Mbps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은 71.77Mbps로 수도권에서 가장 느렸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74.37Mbps)

과 양주시 광적면(74.83Mbps) 등도 전국 평균(150.68Mbps)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시는 조사대상 10곳 중 연수1동(160.53Mbps)과 계양구 계산1동(155.64Mbps)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전국 평균 속도보다 낮았다.

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으로 201.85Mbps였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196.58Mbps), 서울시 은평구 불광제2동(183.48Mbps),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80.37Mbps) 등으로 집계됐다.

/석대성 기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연기 기자간담회

“2020년까지 70% 상환할 것”

“원금·이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펀드의 추가적인 하락 없을 것”
손실 확정보다는 펀드 상환 연기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말까지 70% 이상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펀드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연기한 펀드는 모두 93개 총 8466억원 규모다. 여기에 오는 12월부터 만기가 돌아와

만기 시 상환금의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펀드가 4897억원(56개)이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최대 1조3363억원의 환매 연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CB나 BW 등 메자닌에 투자한 코스닥벤처펀드 1770억원만 만기 상황에 따라 환매 및 상환 연기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매 연기 금액은 최소 1조1593억원에서 1조336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원 대표는 “최근 코스닥 침체와 기업 관련 풍문 등으로 기업 주가가 크게 내렸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의 저가 매각으로 손실을 확정짓기 보다는 펀드

환매 상환을 연기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내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필 부사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사장은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득을 봤던 파티들이 우리가 어려워지니 등을 돌린 것이 기승아프다”면서 “유동성이 힘든 상황에서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막아두면 레버리지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사모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지누스, 14년만에 코스피 재입성

美 온라인 매트리스시장 30% 점유
2015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업체
“20년 내로 100억 달러 매출달성”

글로벌 온라인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자 지누스가 코스피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지누스는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생활 가구업체로 2015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업체로 선정됐다. 2005년 재무 악화로 상장 폐지된 지 14년 만에 재입성하게 됐다.

지누스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년 내로 1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상장계획을 공개했다.

1979년 설립해 올해 40년째를 맞은 지누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매트리스와 침대 등 가구 사업을 운영해왔다. 2005년엔 세계 최초로 침대 프레임 소형 박스 포장형으로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했다. 미국 시장에 수출을 시작한 것도 이때다. 현재는 매장 위주로 판매하던 침대 시장에서 아마존닷컴과 월마트닷컴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27.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윤재 지누스 대표는 “아마존 침실 가구 베스트 20에서 평균 9.5개가 선정

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그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기업 위상을 제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옴니채널로 진출해 2039년까지 100억달러 매출을 달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누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6217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30억원, 436억원을 기록했다. 14일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시가총액 1조806억원으로 포스코건설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가구시장에서도 연평균 3.6%씩 성장해왔다.

이 대표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딛고 이 자리에 섰다”며 “상장폐지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누스를 믿어준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누스 총 공모 주식 수는 전체 상장 예정 주식(1천464만6천140주)의 20.6%인 302만860주다. 공모 희망가는 8만원~9만원, 총 공모 예정 금액은 2417억원~2719억원이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수요예측을 한 뒤 이달 21일과 22일 청약 공모를 받는다. 상장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송태화 기자 alvin@

2015년 안심전환대출 10명 중 3명 중도포기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과거 상품과 구조가 같아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으나 약 4년 만에 8만8833명(30.2%)이 대출금을 만기 전 중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이었고, 연봉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 금리로 전환해 시중보다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나온 상품이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금리가 내려가면서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을 했다가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주 기자 hj9@